계 열 문 항 1

<가>

공적인 정의가 자신의 원리 규준으로 삼는 처벌 종류, 또는 처벌 정도란 어떤 것일까? 그것은(정의의 저울에 있는 저울침이 가리키는) 동일함의 원리, 즉 한 쪽 저울접시 위에 다른 쪽보다 더 많은 것을 올려놓지 않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네가 국민 중 다른 한 사람에게 행한 부당한 악행은 네가 네 자신에게 행하는 악행인 셈이다. 네가 그에게 욕을 하면 너는 너 자신에게 욕을 하게 되는 셈이며, 네가 그의 것을 훔치면 너는 너 자신의 것을 훔치는 셈이며, 네가 그를 때리면 너는 너 자신을 때리는 셈이며, 네가 그를 죽이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는 셈이다. 오직 응보법만이, 단 올바로 이해된 응보법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정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유동적이며, 또한 여타의 것에 대한 고려가 혼합되기 때문에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선고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이 경우엔 정의를 만족시키는 대용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괴로운 인생이라도 그것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범죄와 응보의 동일함 역시, 가해자에게 사법적으로 집행되는 죽음뿐이다. 그 죽음은 당사자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설령 국가가 시민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에 의해 해체되는 경우(가령 섬에 살고 있는 국민이 서로 헤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결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감옥에 남아있는 살인자는 최후의 일인까지 그전에 처형되어야 한다.

<나>

공동체의 이익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 표현 가운데 하나다. 이 용어가 종종 의미를 잃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그 의미는 이렇다. 공동체는 가공의 조직체로서,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개인들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헛수고이다. 어떤 것이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혹은 같은 말로 그의 고통의 총합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을 그의 이익을 증진한다거나 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그 행동은 공리의 원칙 혹은 간단히(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의미로) 공리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특정 개인 혹은 개인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특수한 종류의 행동)은 그것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이나 특히 정부의 어떤 정책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논의의 목적을 위하여 공리의 법칙 혹은 명령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법칙이 있다고 상상해 보는 일, 그리고 그러한 법칙이나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편리해질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나 정책과 관련지어 승인하거나 부인할 경우,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에 맞추어 결정한다면, 달리 말해서 공리성이라는 법칙이나 명령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면, 그는 이미 공리성의 원리를 추종하는 무리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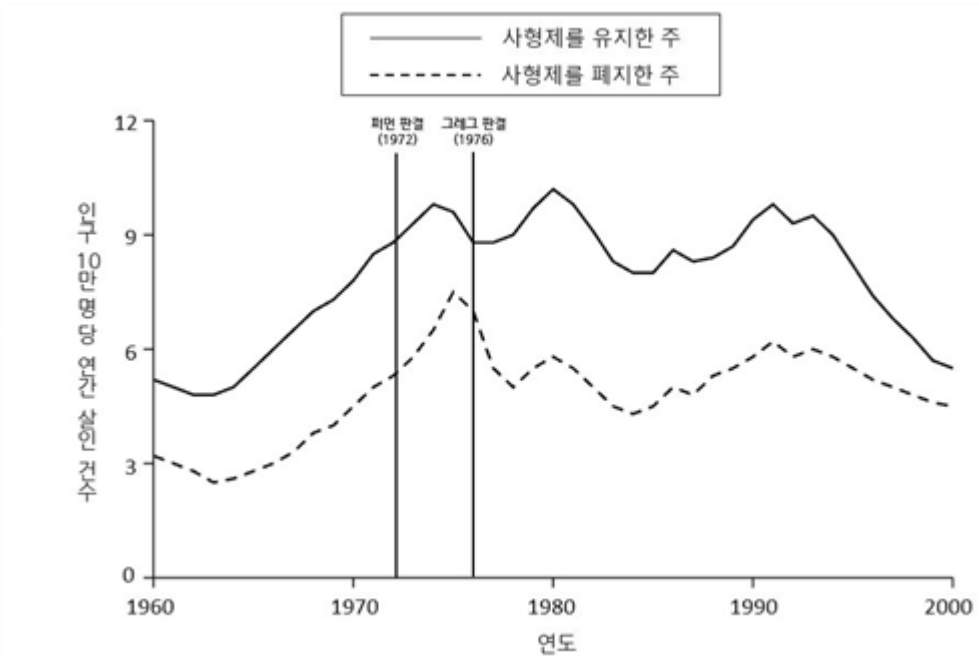
<다>

인간이 무슨 권리로 자기 이웃의 목을 벨 수 있단 말인가? 사형은 주권과 법의 근간에도 위배된다. 법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중 가장 작은 부분의 합산일 뿐이며, 각 개인의 의지를 모두 합친 일반 의지를 나타낸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된 각 개인의 가장 작은 자유가 모든 선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다는 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는가? 내게도 없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사형은 공공선에 필요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은 파괴행위이며, 국가가 한 명의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내가 사형이 필요하지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나는 인도주의라는 대의명분을 갖는 것이다.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 경우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다. 한 국가가 자유를 상실하는가 회복하는가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정부상태가가 도래하여 무질서가 법을 대체해 버릴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평온한 법의 지배 하에 있는 경우, 국민의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체제 하에 있는 경우, 내부와 외부의 적들에 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체제인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둘째, 사형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의 방법일 경우이다. 어떤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타인의 범법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혹성만 갖추어야 한다.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영구적으로 상실해도 좋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종신노역형은 사형 못지않게 범죄를 의도하는 자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함을 갖고 있다. 아니 더 많이 갖고 있다. 형벌은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다면, 최소한의 해악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떨게 할 수 있다. 한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범죄자가 형벌을 통해 받은 해악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종신노역형도 사형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형벌이다.



<그림 1> 미국 각 주의 사형제 존폐 여부와 살인율의 변화*

* '사형제를 유지한 주'(실선)는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최소 한 번 이상 사형이 집행되었던 곳이고, '사형제를 폐지한 주'(점선)는 같은 기간 사형제가 전혀 시행되지 않은 곳이다. 미국은 사형을 유지한 주와 폐지한 주가 공존해 왔으나, 1972년 '퍼먼 판결'로 모든 주에서 사형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이후, 1976년 '그레그 판결'로 일부 주에서 사형제가 다시 도입되었다.

1-1. <나>의 관점에서 <그림 1>에 나타난 사형제의 효용성을 설명하시오. (300±30자)

1-2. <나>와 <다>를 활용하여, <가>를 비판하시오. (600±60자)

계 열 문 항 2

<가>

"해치웠어, 기어코 해치웠단 말이야."

으슥히 추운 겨울에 들어선 어느 날 아오야기는 한 장의 호외를 움켜쥐고 현의 하숙집으로 뛰어들었다. 진주만 공격. 이어서 싱가폴 함락. 비율빈 상륙. 자바 점령. 축하 행진. 광적인 흥분과 도취가 떠돌고 거리에는 국방색이 범람해 갈 때, 현은 어딘지 각본에 어긋나는 연극이 연기자도 관중도 예기할 수 없는 엄청난 종막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동양 윤리를 강의하는 다까다 교수는 갑자기 엄숙한 표정을 짓게 되었고 서양 문명의 몰락과 절망, 동양의 정신문화의 세계사적 의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날도 다까다 교수는 마치 십억 아시아 민족 전체를 눈앞에 놓은 듯이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오노오노 소노 도꼬로오 에시무……(각기 그 응당한 자리에 서게 함……)'란 만고불변의 진리다. 개인을 절대적 단위로 하고 무원칙적인 평등과 무제한한 자유를 목적으로 한 서구의 사회 질서는 극도의 혼란을 조장케 되었고, 그 문명은 바야흐로 몰락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 …… 으흠.

그러므로 일찍이 니체나 슈펭글러는 솔직히 그들 자체의 몰락을 예언했고 …….

……서구 사상 자체의 모순의 필연적 기형아로서 출생한 유물변증법은 계급 투쟁을 도발하여…… 서구의 기계문명은 총 와해에 직면해 있고…… 이때야말로 빛은 동양으로부터…… 천손(天孫) 민족이 궐기할 때는 당도한 것이다…….

'오노오노……' 그것은 존재의 조화 원리를 투시한 것이며 겸허한 인간 정신의 가치는 '고에 다까라까니 우다우 모노(소리 드높이 노래하는 것)'이다……."

이까지는 또 몰랐다.

"역사적 대사명…… 팔굉일우(八紘一宇), 얼마나 장엄한 선언이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미영의 굴레에서 억압된 황색 민족을 해방하고……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를 회복한다…… 일본은 그 맹주(盟主)가 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비장하고 장엄한 사명이냐."

그래서?

"따라서 국민 각자는 높은 긍지를 파지하고 전 아시아 창생의 구출과 나아가 거룩한 정신을 펴기 위해…… 자아를 멸하여 이 대목적에 헌납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의 섭리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얼마나 빛나는 영광이겠느냐…….

보라, 들에 노니는 축생일지라도 그들 자신을 멸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들은 그들의 한 가닥 뼈마저 달게 인간을 위해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창생의 절(絶), 섭리의 묘(妙)."

달게?

"축생조차 그러하거늘 하물며 인간에 있어서랴. 아시아 민족이 각기 그 응당한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자아를 멸하여 대의에 살아야 한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인간 존재의 대원칙이다."

<나>

원정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는 클레이니아스의 아들 알키비아데스였다. 그는 늘 자신과 정견을 달리하며 방금 행한 연설에서 자신을 인신공격한 니키아스에게 반대하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장군이 되기를 열망했다. 그럴 경우 그는 시켈리아와 카르케돈을 정복하게 될 테고, 또 그런 성공에 힘입어 개인적으로도 부와 명예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시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경주마들을 먹이는 일과 다른 사치에 대한 열정이 그의 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실제로 그의 이러한 사치는 훗날 아테나이 시가 몰락한 주요 요인이었다. 대중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쾌락주의적 생활 방식이 지나치고, 무슨 일에 개입하든 그가 번번이 엄청난 야망을 드러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가 참주가 되려는 줄 알고 그를 적대시했다. 그래서 그가 공인(公人)으로서는 탁월한 전략가였음에도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그의 생활 방식에 혐오감을 느끼고 그를 다른 사람들로 대치함으로써 오래

지 않아 도시가 몰락하게 했던 것이다. 이때 알키비아데스는 앞으로 나와 아테나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아테나이인 여러분, 나는 누구 못지않게 장군이 될 권리가 있으며 나야말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니키아스의 인식공격 때문에 이렇게 연설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난받고 있는 일들이 내 선조들과 나 자신에게는 명예를, 우리 도시에는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헬라스인들은 우리 도시가 전화를 입어 피폐한 줄 알았는데, 올륌피아 축제에서 내가 사절로서 훌륭한 연출을 한 덕분에 우리 도시의 실력을 실제 이상으로 평가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나는 지금까지 어느 개인이 출전시킨 것보다 더 많은 전차 7대를 출전시켜 1등, 2등, 4등을 차지했고, 그 밖의 다른 일도 내 성적에 어울리게 연출했습니다. 그러한 성공은 통상적으로 명예를 안겨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럴 만한 실력이 있다는 인상을 주게 마련입니다. 나는 또 아케나이에서는 코로스의 비용을 대는 등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서 '우쭐댄다'고 당연히 동료 시민들의 시기를 샀지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는 우리에게 힘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누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뿐 아니라 도시에까지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러한 '어리석음'은 아주 쓸모 있는 것입니다. … <중략> … 우리가 현재의 평화 상태에 집착하지 않고 시켈리아로 항해하는 것을 보면 펠레폰네소스인들은 콧대가 꺾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마도 시켈리아에서 얻은 것에 힘입어 헬라스의 패권을 쥐게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쉬라쿠사이를 약화시킬 텐데,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동맹국들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다>

전쟁은 우리가 자연 질서나 사회 도덕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전복한다. 전쟁 중에는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반 시설, 즉 건물이나 다리, 철로를 폭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정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한 일이다. 평시에 기괴하거나 끔찍한 것들(이를테면 시체 냄새, 진흙, 들쥐, 이, 더러운 물, 상한 음식)이 전시에는 평범한 것들이 된다. 평시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들(이를테면 유행하는 옷이나 스포츠용품)이 전시에는 가치를 잃고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를테면 철사 절단기나 발 파우더)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전쟁은 일상의 패턴을 변화시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때 서부전선은 밤에 안전하고 낮에는 위험했다. 낮에 군인들은 햇빛 때문에 상대편 감시병의 눈에 띄었다.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 일했다. 밤에 군수품을 나르고, 참호를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고, 굴을 파거나 무인지대 공략에 나섰다. 보름달은 우러러 볼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이었다. 하늘의 빛은 축제용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의 안내자였다.

풍경의 의미도 바뀌었다. 강과 운하는 더 이상 운송과 관개에 쓰이지 않고 방어에 이용되거나 공격의 장애물이었다. 산, 숲, 언덕, 계곡은 작전의 일부여서, 점령하거나 사수해야 할 전술적 목표였다. 프랑스 북부의 비미능선은 아래쪽 평지에 비해 7미터 높이에 불과하지만 1917년 독일군으로부터 탈환하느라 발생한 캐나다군 사상자가 1만 명에 달했다. 평야와 농장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음과 총포를 수확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해서,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불발탄들이 겨울에 동상(凍上) 현상 때문에 밀려 올라와 서부전선 지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 <중략> …

전쟁이 한창 달아오르면 규칙들은 쉽게 깨지거나 무시됐고, 전쟁터 가까이에 있거나 포위된 곳에 있으면 민간인도 끔찍한 일을 겪었다. 1941년 9월 독일군이 소련의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위하기 시작했을 때 시의 인구는 약 700만 명이었다. 1944년 1월 포위가 끝날 때까지 175만 명이 피란했고 100만 명이 사망했다. 보통 먼저 죽는 이들은 아이, 노인, 가난한 자 같은 약자들이다.

2-1. <가>의 다까다 교수와 <나>의 알키비아데스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2-2. <다>를 활용해 <가>와 <나>에 나타난 전쟁 정당화의 논리를 비판하시오. (600±60자)